시트콤으로 만나요

청춘들이 만든 청춘들의 고민

'사각사각 필름제작소' 회원들

광주 대학생들 영상동아리 '사각사각 필름제작소'

'사각사각, 사각사각'. 무슨 소리일까요. 영상으로 세상과 소통하겠다며 광주지역 대학생들을 주축으로 뭉친 영상동아리 '사각사각 필름제작소'(이하 사각사각)가 관객들의 마음을 갉아먹는 소리입니다.

사각사각은 많은 제작비나 값비싼 장비가 아닌 열정으로 영화와 시트콤 등을 만드는 대학생 영상동아리다. 평범한 대학생 동아리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사각사각이 선보이는 간질간질한 작품들은 관객들의 마음을 사각사각 갉아먹고 있다.

8부작 '으라차차 게스트하우스'… 2편 공개

단편 독립영화도 제작… 케이블 방영 협의중

사각사각이 최근 유튜브에 선보인 시트콤 '으라차차 게스트하우스'가 그렇다. 지금까지 모두 두 편이 공개된 '으라차차 게스트하우스'는 그동안 단편 독립영화를 주로 제작해온 사각사각이 대중과 소통하기 위해 처음으로 시도한 시트콤이다.

내용은 이렇다. 철없고 돈 없는 취업준비생 이정도(남)와 소심하지만 유명한 팬픽작가인 대학생 지영우(남), 한국 드라마를 보고 사랑을 찾아 한국에 온 주리김(여), 외모에 투자하는 깍쟁이 유지은(여) 등 20대 남녀 4명이 한 게스트하우스에 입주하면서 좌충우돌 펼치는 에피소드다.

으라차차 게스트하우스는 에피소드들을 통해 대한민국 청춘들이 한번쯤은 가졌을 법한 고민을 이야기한다. 개성 넘치는 캐릭터와 함께 위트 넘치는 영상 구성이 돋보인다.

전체 8편 중 현재까지 공개된 에피소드는 2편. 후속 편들을 기다리는 팬들이 많지만 나머지 6편의 공개가 늦어지는 이유는 현재 한 케이블 방송사와 방송에 대해 협의중이기 때문이다.

시트콤 제작에 참여한 인원은 모두 30명이다. 사각사각 회원 16명과 전국에서 공모를 통해 재능기부로 참여한 배우들이 함께했다.

제작비는 모두 50만원이 들었다. 장소를 섭외하고 세트를 꾸미는데 사용된 예산이다. "라면과 친해지면서 피와 땀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이 사각사각의 표현이다.

사각사각은 지난 2011년 조선대 문창과 휴학생인 박정주씨의 주도로 만들어졌다. 지금까지 모두 4기의 회원을 모집했다. 회원들은 '1인 1영화 제작 프로젝트'를 통해 직접 시나리오, 콘티, 배우 오디션, 편집 등의 작업을 하면서 영화를 만들고 있다. 지난 2012년에는 '제1회 사각사각영화제'를 개최해 직접 제작한 영화를 일반에 선보이기도 했다.

최근에는 서울본부와 광주지부로 나눠 운영하고 있다. 본격적으로 영화를 배우기 위해 서울로 올라간 박정주씨를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회원을 모은다.

영화감독이 꿈인 박씨는 "우리와 같은 학생들이 가진 이야기를 영화로 말하고 싶어 사각사각을 만들었다"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사각사각은 올 겨울 방학 때에도 모두 4편의 단편영화를 촬영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직접 시나리오를 쓰고, 촬영까지 하면서 자신들의 이야기 그리고 대학생들의 이야기를 그릴 예정이다. 부족한 제작비는 크라우딩 펀딩을 통해 모금할 계획이다. 또 사회적 기업이나 영상을 필요로 하는 기업의 영상을 찍어 주는 프로젝트도 생각중이다.

광주지부 허미현 부대표는 "처음에는 영화에 대한 지식이 없어 두려움이 앞서기도 했지만 점차 틀을 잡아가고 있다"며 "영화를 통해 세상을 이야기할 수 있는 학생들이 많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사각사각이 제작한 '으라차차 게스트하우스'는 유튜브(1편 : youtu.be/5aAXiE72Nos, 2편 : youtu.be/Ioiz5WbmznM)에서 볼 수 있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유튜브에서 만나요"

'호접몽을 꿈꾸다'

돋움무용단 내일 빛고을시민문화관

'춤으로 풀어낸 인문학.'

광주여대 박선욱 교수가 예술감독을 맡고 있는 돋움무용단은 '춤으로 전하는 내일'을 주제로 지금까지 '청산리 벽계수야'와 '태평무 이야기'를 공연했었다.

15일(오후 7시30분 광주 빛고을시민문화관) 무대에 올리는 세번째 시리즈 '호접몽을 꿈꾸다'는 춤으로 엮어낸 인문학적 사유다.

작품의 모티프는 중국 전국시대 장자의 유명한 일화에서 따왔다. '호접몽(胡蝶夢)'은 장자가 꿈에 호랑나비가 되어 날아다니다가 깬 후 자기가 꿈에 호랑나비가 되었던 것인지 호랑나비가 꿈에 장자가 되었는지 모르겠다고 한 이야기에서 유래된 말이다. 안무를 맡은 박 교수는 자신의 그림자를 돌아보며 본성을 찾아가는 현대인의 이야기를 춤의 언어로 풀어내고자 했다고 밝혔다. '나비 꿈', '나는, 난?', '내가, 나다', '당신의 땅' 등 모두 5개장으로 구성돼 있다.

최영화(호남대 교수)씨가 연출, 배창희씨가 음악을 맡았다. 박은영·송아름·정주희·김혜미·황화정씨 등이 출연한다. 문의 062-950-3767.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올 마지막 목요상설무대

소프라노 유형민 초청 오늘 빛고을아트스페이스

광주문화재단 기획 공연 목요상설무대가 올해 마지막 무대를 진행한다. 14일 오후 7시30분 빛고을아트스페이스에서 열리는 소프라노 유형민〈사진〉의 12번째 리사이틀 'After 1597… 400여 년을 걷다'.

공연은 1597년 처음 오페라가 탄생한 이후 발표된 주요 작곡가의 작품 중에서 여주인공들의 유명한 아리아를 중심으로 대사 없이 음악과 노래로만 그녀들의 현재와 과거의 삶을 엮어 들려준다.

비가를 부제로 한 몬테베르디의 오페라 '아리안나' 중 '아리안나의 비가'와 퍼셀의 오페라 '디도와 에네아스' 중 '디도의 비가' 등을 들려준다.

마지막 에필로그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기를'에서는 연극적인 해프닝과 함께 쿠르트 바일의 현대 오페라 '서푼짜리 오페라' 중 '해적제니'를 노래한다. 반주는 피아니스트 이상록씨가 맡는다. 7세 이상 관람 가능. 전석 2만원. 문의 062-670-7492.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상상문화발전소 1839-김미경 작 '바당, 결'

"바람타고 전해지는…" 전남문예재단 레지던시 지원사업 결과 보고전

15~21일 담양 대담미술관

전남문화예술재단 레지던시 지원사업에 참여했던 문화·예술단체들이 올해 결과물들을 한자리에서 선보인다.

'남도아트센터', '상상문화발전소 1839', '대담미술관', '도화헌미술관', '잠월미술관'은 15~21일 담양 대담미술관에서 '바람타고 전해지는 남도의 숨결'을 주제로 전남문화예술재단 레지던시 지원사업 결과 보고전을 연다.

남도아트센터는 '주거학-골목길의 추억'을 주제로 참여 작가들이 목포에서 지내며 느낀 삶과 자신들의 옛 추억을 담은 설치와 회화작품을 선보이며, 상상문화발전소 1839는 남해안 사진 기록작업 '남해안 프로젝트'와 순천만 자연마을과 사람들에 대한 사진 다큐멘터리 '순천만 프로젝트'를 전시한다.

'대담미술관은 '향교리 예술촌Ⅱ-알콩달콩 향교리 골목길'을 주제로 한 작품, 도화헌미술관은 전남의 풍취를 담아낸 작품, 잠월미술관은 '힐링'이라는 주제로 담아낸 작품 등을 선보인다.

15일 오후 3시30분에는 대담미술관에서 '거주예술인창작활동지원사업의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심포지엄'이 열린다. 문의 061-381-0081.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